

“집토끼 지키고 산토끼 잡아라” 文·安 ‘장미전쟁’ 본선 돌입

Ⓟ ‘선택 2017’ 대선 D-22

유동성 많아 안갯 속 표심

호남·영남 민심이 승패 좌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부터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관련기사 2·3·4·5면〉

장미의 전쟁이 시작됐지만 판세는 아직 안개 속이다. 각종 변수 등으로 판세의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 편의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단 대선 구도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팽팽한 양강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지만 힘이 부쳐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는 호남과 영남 민심의 향배가 꼽히고 있다.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과 보수 표심의 중심인 영남 민심의 흐름은 결국 수도권 표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선 호남 민심을 놓고 야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든 당력을 총동원하는 등 치열한 백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서 밀린다면 야권 주자로서의 상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양강 구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표심의 전략적 선택도 최대 변수다. 보수 후보 가운데 유력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영남 표심은 야권 주자를 놓고 고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는 PK(부산·경남)의 지지세를 TK(대구·경북)로 북상시킨다는 전략인 반면, 안 후보는 TK의 안풍(安風)을 PK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 표심만 결집한다면 야권 주자들의 분열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소위 3자 필승론이란 메아리는 그리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보수 주자인 홍 후보와 유 후보의 후보단일화와 상대적으로 밀리는 유 후보의 완주 여부도 보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꼽힌다. 보수 주자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도 관건이다. 10~15% 미만이면 안 후보가, 15% 이상

이면 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완주 여부도 대선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5차례나 남아 있는 TV 토론도 부동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빙 판세라는 점에서 부동산 표심의 향배는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을 크다. 특히, TV 토론은 수권 능력의 검증 대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지지층의 이동 현상도 낼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위기 국면이라는 점에서 안보 이슈는 ‘뜨거운 감자’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 가족과 측근의 구설과 당과 선대위 인사들의 헛발질 등 돌발 악재도 민심의 분노를 부를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악재의 최소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변수가 속출하면서 막판까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살얼음판 판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번 문재인·2번 홍준표·3번 안철수·4번 유승민·5번 심상정

19대 대선 후보등록 마감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돌입

‘5·9 장미 대선’의 후보등록이 16일 마감되면서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은 22일 간의 총선거를 붙잡고 경쟁에 들어갔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17일부터 전국을 돌며 총력 유세를 진행한

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통합’을 내세워 불보지인 대구에서 시작해 충청서 지도부와 결합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총력유세를 벌이는 일정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날 ‘안전’에 방점을 두고 인천항 VTS 방문을 마친 뒤 하행선을 타고 1박2일간 광주, 대전, 대구

■ 19대 대선 후보 기호 배정



등을 방문해 호남, 충청, 대구·경북(TK)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구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천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전을 벌인다.

앞서 16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주당 문재인 후보이며, 2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번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순이다.

한국당을 탈당해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 조원진 후보는 기호 6번을 받게 된다. 원내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인 대한후보는 정당명 기준 가나다 순서대로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추모와 희망의 노란물결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선체가 거처된 목포신항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 참석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귀환을 염원하며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다.

/목포=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눈물·기억... 세월호 추모 노란물결

목포신항 등서 참사 3주기 행사

미수습자 수습·진상규명 목소리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관련기사 6·17·19면〉

추모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수습자 9명을 조속히 수습하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라’, ‘세월호 침몰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세월호 침몰해역과 가장 가까운 진도 팽목항 분향소 앞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진도군 주관으로 추모행사가 열렸다.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해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추모행사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추모공연, 세월호 영상 방영, 추모사, 미수습자 가족 추모 답사, 진도지역 고교생 추모 시 낭송, 304개의 추모편지 날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미수습자인 단원과 허다운양의 아버지 허홍환씨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 세월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탐색객 전원이 수습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신항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세월호 선체가 보이는 항만 철재판스에 노란 리본을 묶으며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목포신항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대축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해 추모 미사로 대신한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수습자 9명이 수습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자”고 말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대권주자들도 이날 안산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벌써 한여름? 광주 30.4도...78년만에 4월 최고기온

16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4월 최고기온 30도는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78년 만에 최하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주의 낮 기온이 30.4도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때는 보통 5월 하순경이다. 2013년엔 5월22일(30.1도), 2014년 5월29일(33.3도), 2015년 5월26일(31.1도), 지난해 5월18일(31.1도)일 처음으로 30도를 넘었다.

이보다 무려 한달이 빨라진 것이다. 전남지역은 광양 26.8도, 강진 26.3도, 진도 25.2도를 보이는 등 때 이른 초여름 기온을 보였다.

17일에는 중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지방부터 차차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이며 남해안 부근에는 8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제품(보증금)	2017. 1. 1. 부터 출고된 제품(보증금)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시여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량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